

붉은 함성 하나된 새벽, 대한민국 뜨거웠다



“이렇게 좋을 수가”

23일 새벽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거리로 거리로...

한국과 나이지리아 경기가 열린 23일 새벽 태극전사를 응원한 붉은 악마와 시민들이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서울 광화문 앞 거리로 뛰쳐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 축구가 '약속의 땅' 더반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일궈냈다. 남아공과 대한민국 곳곳에서 붉은색 티셔츠와 붉은 악마 머리띠를 차고 목이 터져라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감동을 나눴다. 이날의 감동을 화보로 전한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 16강이래”

23일 새벽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예선 한국과 나이지리아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한국의 첫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기뻐하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된 23일 새벽 서울 코엑스 앞에서 거리응원전을 펼쳤던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태극기와 부부젤라

2010 남아공월드컵 한국과 나이지리아전이 열린 23일(한국시간) 새벽 남아공 더반 모세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외국인 관중이 부부젤라를 불며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